전북형 소부장 기업육성 R&D 추진

도, 기술 국산화 · 미래 신기술 분야 R&D에 최대 9000만원 지원… 내달 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전북도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 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2022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전북형 소부장 기업육성 R&D 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지원·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 타 R&D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확보와 도내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필요에 따라 지원요건을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제한하며, 전문기업 신청은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에서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정부의 소부장 분야 육성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GVC 재편 대응 기술국산화 6대 분야와 미래유망 및 신기술 분야 5대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은 기업 단독 또는 기업 주도 컨소시엄(도내 소재 기업 주관 + 참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규모는 최대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북도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모집 공고는 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접수신청은 오는 3월 8일 16시까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R&D 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300억 규모의 소부장펀드를 조성, 도내기업에 적기에 자금투자를 통해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펀드는 4년간 약 90억 규모를 도내기업에 투자하기로 계획, 지난해 전북기업에 20억 원이 투자됐고, 그간 전북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조기 발굴된 만큼 올해에 계획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펀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북형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 확정

도,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선도기업 육성

최장 6년간 기술개발지원자금 · 투자 · 판로 등 사업화 지원

전북도가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도내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미래지능형 기계 분야에 '㈜대륜산업(대표 이주협)'과 '㈜올릭스(대표 안종욱)', ▲스마트농생명 식품산업 분야에 '㈜티엔티리서치(대표 박명흠)'와 '㈜한소아제약(대표 최재국)' 등 4개사로 지정 기간 3년간 집중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협업 성과를 고려해 최대 3년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사전 기획을 위해 컨설팅, 전문PM 매칭,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연장시 추가 지원 가능)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임재욱 도 기업지원과장은 "전북도 주력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자립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2년 하반기에 지역혁신 선도기업(4개사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동반성장 역량을 갖춘 도내 기업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소, 염소 구제역 항체양성률 전국 최고

전국 소 98.1% · 염소 89.8% ⇒ 전북 소 99.0%, 염소 95.4%

몽골 · 중국 · 러시아 등 구제역 발생으로 위험한 상황 경계

전북도는 지난해 소와 염소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9.0%, 염소 95.4%로 전국평균 소 98.1%, 염소 89.8%보다 각각 0.9%p, 5.6%p 높고,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3년 연속 향상됐다.

소 항체양성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전북(99.0%), 전남(98.9%), 경기·충북(98.7%), 강원(98.3%) 순이었고, 낮은 시.도는 경남·경북(97.6%), 제주(97.0%), 충남(95.7%) 이었다.

염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전북(95.4%), 충북(93.7%), 경기(89.9%), 경남(89.8%) 순이었고 강원(89.7%), 경북(88.9%), 전남(88.2%), 충남(85.6%), 제주(74.2%) 순으로 낮았다.

도는 그간, 항체양성률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한 90초 동영상 제작 보급, 농가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제역 방역영상 제작 보급, 4월과 10월 정기적인 백신접종, 항체저조농가 특별관리를 실시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나라 주변국인 몽골('21.8월 발생), 중국('21.10월 발생), 러시아('21.12월 발생)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축사 출입시 반드시 손발을 씻고,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은 후 농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중기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유튜브 채널 통해 생방송 진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등 7개 수출유관기관 참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도 진행

설명회 불참 기업 위해 행사 후 경진원 채널에 영상 공개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2년 전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10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방우정청 등 도내 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수출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와 수출거점(베트남·인도)을 활용한 수출비즈니스 지원사업,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오프라인 판촉행사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 무역박람회 참가,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 등 기관별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책 설명회 종료 이후 RCEP 활용 설명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로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협정내용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수출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규모, 무역경험, 수출품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컨설팅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행사 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설명회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재생에너지사업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 발족

참여 위원 대표성 · 전문성 크게 높여… 사업 정책방향 제시 역할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9일 새롭게 위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위원(9명)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호선으로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과 현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위원장인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새만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참여 위원의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5명)과 공모 방식(4명)을 병행해 구성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되고,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단계에서, 갈등 관리 중심이었던 민관정책협의회가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그간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한 대타협의 결과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상업발전을 시작하는 등 새만금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1번지로 거듭날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국가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9일 새롭게 위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위원(9명)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2-129호

장수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신설)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장수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신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illegible] 제28조, [illegible] 제22조, [illegible] 제8조 및 [illegible]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illegible]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주차장 (제1주차장)	장수리 168-2번지 일원	2,706	감) 2,706	-	장수군 고시 제2004-6호 (04.03.2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제1주차장)	• 군계획시설 폐지 - 면적 : 2,706㎡ → 0㎡ (감 2,706㎡)	•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주차장 폐지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청사

• 신설(변경) 조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4	공공청사	행정복합센터	장수리 168-2번지 일원	-	증) 2,989	2,989	금회	

[illegible]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60	200	4층 이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내용	결정사유
4	공공청사	• 군계획시설 신설 - 면적 : 0㎡ → 2,989㎡ (증 2,989㎡)	•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3.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2. 2. 10. ~ 2022. 2. 24. (14일)

나. 공람장소 : 장수군청 [illegible] 도시팀

4.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illegible]까지

나. 제출방법 : 장수군청 [illegible] 도시팀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 내 제출

5. 관계도서 : 붙임 생략(공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도시팀(☎ 063-350-2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장 수 군 수